



즉시 배포용: 2018 년 6 월 19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자녀와 가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TRUMP 행정부에 맞서 여러 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발표

롱아일랜드에서 어린이들이 구급된 이후 나온 주지사의 조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국경에서 헤어진 이민자 자녀와 부모 수천 명의 헌법적 권리를 연방 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뉴욕주가 Trump 행정부를 상대로 여러 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소재 연방 대피소에 70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 확인할 경우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가족 분리(Separation of Families)” 정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아동가족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국경에서 이민자 가족들이 냉담하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한 이후, 뉴욕주는 미국 전역의 다양한 지역에서 최소한 10 곳의 시설에 머물르고 있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해체하는 Trump 행정부의 정책은 도덕적으로 실패한 인류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자녀와 부모의 헌법적 권리를 연방 정부가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은 이민자 공동체를 표적으로 하는 이 냉담하고 의도적인 공격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자비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영원히 종식시킬 것입니다.”

주지사는 뉴욕이 연방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및 가족의 헌법적인 권리 침해

미국에 부적절하게 입국하면서 경미하게 연방 정부법을 위반한 후, Trump 행정부의 새로운 “무관용” 기소의 결과로 부모들이 국경에서 자녀와 헤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행정부에서는 국경에 자녀들과 함께 나타난 가족의 경우, 법원에 출두하는 일자에 따라 함께 기소되고 석방되었습니다. 현재 갱단의 폭력에서 자녀와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많은 부모들이 조직적으로 억류되어 있으며 자녀와 분리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 및 양육권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들은 여전히 가족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뉴욕주에서 부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진 미국 헌법에 따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플로레스 합의(Flores Settlement) 조건 침해

1997년 플로레스 합의서(Flores Settlement Agreement)는 이민자 구금 상태 중 모든 어린이의 구금, 석방, 처우에 관해 국가적인 기준을 정한 후, 가족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중 청소년 억류자는 불필요한 유예 기간없이 구금 시설에서 석방되어야 합니다. 또는 적절한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연령 및 특수한 요구에 적합한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서 억류되어야 합니다. 플로레스 합의(Flores Settlement)는 부모의 양육권에 대한 명확한 선호와 가족 재통합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는 “무관용” 정책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뉴욕의 요구를 뒷받침합니다.

충격적인 정부 시행 원칙에 근거한 냉담한 정책

대법원(Supreme Court)은 “법 집행 요원의 행위가 너무 과격해서 정당한 법 절차 원칙에 따라 정부가 유죄 판결을 얻기 위해 사법 절차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언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날이 도래했습니다. 뉴욕주는 불필요하고 비인간적인 가족 분리와 어린이 구금으로 이어지는 연방 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맞설 것입니다. 이는 합법적인 국가 보안 또는 공공 안전 목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일찍 Cuomo 주지사는 “무관용” 정책을 규탄하고, 연방 정부가 국경에서 이민 가정에 대한 학대를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Mike Pence 부통령에게 [발송했습니다](#).

주지사의 법적인 소송 요청은 새로운 프로그램 출범과 뉴욕 전 지역의 이주민을 위해 늘어난 서비스 및 지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늘리기 위해 주무부(Department of State)에 지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살바도르인, 아이티인, 니카라과인 등에 대한 임시 보호 상태(Temporary Protected Status) 종료에 관한 Trump 대통령의 결정에 맞서 수천 명의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6월 8일에 주지사는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의 업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John Kelly 감찰관 대행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일요일에 주지사는 국경에서 발생하는 이민자 가족에 대한 처우를 미국 국토안보부에 다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6월 18일 월요일에 주지사는 뉴욕주가 국경에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며, 연방 정부의 이민자 가족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 LDP)

이 대책에 대한 최근의 촉구는 2017년 Cuomo 주지사가 설립한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를 비롯하여 이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 행정부의 포괄적인 활동을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적대적인 연방 정부 정책에 대응하여 설립된 자유 수호 프로젝트(LDP)는 법적인 서비스와 절차를 밟는 데 있어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미국 최초의 프로젝트입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강제 퇴거 방어, 직접 진술, 상담, 신청 지원 그리고 기타 사항 등에 관한 필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민관 파트너십은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에서 관리하고 뉴욕주 전 지역의 법률 회사, 법률 협회, 옹호 단체, 단기 대학, 종합 대학교,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 등과의 공조하에 운영됩니다.

2017년 7월 이후,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지역사회 기반 그룹 47곳의 네트워크를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개인에게 10,000건이 넘는 무료 기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NaturalizeNY 프로그램 신청 마감기한 연장

이민자들과 소외층이 뉴욕의 시민 생활과 경제생활에 완전히 합류하는 것을 돕는 주지사 활동의 일환인 NaturalizeNY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최초의 합법적인 이민자 서비스 사무소인 NaturalizeNY는 뉴욕 주립 대학교 올버니 캠퍼스(SUNY Albany)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의 교수진뿐만 아니라 로빈 후드(Robin Hood) 재단, 뉴욕 커뮤니티 신탁회사(New York Community Trust),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의 이민 정책 연구소(Immigration Policy Lab)와 협력하여 Cuomo 주지사의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ONA)에서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자격이 되는 이민자는 귀화 신청 수수료 725달러를 면제해주는 바우처에 등록하고 추첨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NaturalizeNY.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이주자 직통 상담전화(New Americans Hotline) 800-566-7636 번을 통해 전화로 신청하거나, 또는 이주자 지원국 기회센터(ONA Opportunity Center)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에 시작된 등록 기간의 경우, 6월 15일의 원래 마감 기한이 2018년 7월 3일로 연장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2013년에 이주자 지원국(Office of New Americans)을 설립한 이후, 20만 명이 넘는 이주자들이 귀화 과정에 돌입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키워가며,

영어를 배우고 뉴욕의 다양한 문화적 조직의 일부가 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543 명이 귀화 및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하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 뉴욕주 전 지역에서 타언어 사용자들을 위한 영어(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ESOL) 수업에 34,938 명이 참여했습니다.
- 4,986 명이 뉴욕 전 지역에서 기업가 정신 수업(entrepreneurship class)에 참여했습니다.
- 500 명이 실제 교실 수업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전화 기반의 영어 학습 시스템인 셀-에드(Cell-Ed)를 통해 최소 20 시간의 영어 수업 과정을 마쳤습니다.
- 1,540 명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셀-에드(Cell-Ed)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직접 개인을 지원하는 일 외에도,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은 여권 신청 방법, 대학 지원 방법, 이민국 공무원 자택 방문시 해야 하는 일,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피소,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뉴욕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6,000 회 이상의 세미나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